

##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권위, 권위주의와 체면의 구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sup>1)</sup>

최상진<sup>1</sup> · 김의철<sup>1</sup> · 홍성윤<sup>1</sup> · 박영숙<sup>2</sup> · 유승엽<sup>3</sup>

<sup>1</sup>중앙대학교 · <sup>2</sup>이화여자대학교 · <sup>3</sup>남서울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의 권위에 관한 의식체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권위, 권위적 및 권위주의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과 더불어 체면행위와 체면관행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권위나 권위주의와 관련된 행동이 인습과 전통성을 가지며, 도덕적 성격을 띤 관행적 행동이라는 것은 일상적 삶이나 사회관계 속에서 비판적 의식의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문화맥락적 행위임을 뜻한다. 체면도 권위나 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습성과 전통성을 가진 문화맥락적 행위현상으로 이에 대해 양가적 평가가 가능한 회색영역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은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그 기제 면에서 선후적 또는 인과적 관계를 갖는 쌍둥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권위에서 체면이 나오며 체면에서 권위가 세워진다.

본 연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토착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해보고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체면 행위 및 관행이 어떻게 권위 및 권위주의와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권위와 권위주의를 본 연구자들이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일견 모순된 방향의 두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는, 최근 들어 사회 제 분야에서 제반권위가 파괴 또는 해체됨으로써 사회조직의 통제체제가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

회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사회에서는 어른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 기업에서는 상사의 권위, 정치계에서는 정치인의 권위, 심지어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권위마저 약화 내지 해체됨으로써 교육과 체제능력 및 통어적 권능의 약화가 초래되고, 전반적으로 사회 불안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경동, 1992; 김기순, 1994; 박동서, 1991; 최재석, 1994).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권위주의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합리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권위주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방해야 할 근대화의

1) 본 연구는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공적으로 지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동·서양 각국의 문화를 비교한 Hofstede(1991)는 한국의 문화를 권력거리(power distance)가 큰 문화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최재석(1994), 김경동(1992; 1993)을 비롯한 국내의 사회학자들도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 원리를 권위주의에 두고 있다. 최재석(1994)은 권위주의적 사회의 특징으로 인간을 상하·존비·귀천의 이가적 해석과 더불어 인격보다는 가문, 재산, 학벌, 직위, 성별 등과 같은 인격외적 요인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들을 들고 있다.

일반 상식인의 시각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위주의가 횡횡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쉽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권위와 권위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먼저, 영어의 'authority'라는 말에 해당되는 권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한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정당성이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철학을 비롯한 윤리학 등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와 논란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반인들이 말하는 권위의 추락과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권위와 권위주의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권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윤리학적 이론과 시각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논의될 것이다.

###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ies)의 철학과 접근방법

미국 학자가 주를 이루는 일반심리학의 전통은 실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연과학적 전통에 뿌

리를 둔 것이다(최상진, 1997; Kim, 1995, 1999; Kim & Berry, 1993). 그러나 미국이 아닌 지역, 특히 아시아의 심리학자들은(Azuma, 1984; Ho, 1982; Hsu, 1983; Kim, 1995) 특정 문화에만 의거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적인 심리학에 대해 비판을 했다. 심지어는 유럽 심리학자들까지도(Graumann, 1972; Harre, Clarke, & De Carlo, 1985; Moscovici, 1972) 과학적 심리학은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문화적인 면을 다루는 과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은 심리학이 인간 정신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심리학의 본질로부터 이탈되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 심리학의 필연적 부분으로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통합할 필요를 주장하여 왔다. 예컨대 민족심리학(ethnopsychology: Rosch & Lloyd, 1978) 민족심리학(folk psychology: Bruner, 1990) 사회기원학(ethogeny: Harre et al., 1985) 비교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 Berry, 1980)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ies: Kim & Berry, 1993; Kim, Park & Park, 1999)과 같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외에도 문화와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문적 시도들이 많은 학자들(Kim & Berry, 1993; Kim, Triandis, Kagitcibasi, Choi & Yoon, 1994; Shweder, 1991)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현대심리학의 창시자인 Wundt(1916)는 분석의 다른 차원에 기초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심리학이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적 차원의 심리학은 실험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 기본정신과정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며, 문화적 차원의 심리학은 민족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고등정신과정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둔다. Wundt(1916)는 민족심리학을 통해 인간이 창조한 산물인 언어 신화 관습 전통에 대한 검토를 하므로써, 인간의식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Wundt(1916)

의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심리학적인 토양에서 그 진가가 소홀히 다루어졌다. 본 연구자들은 Wundt (1916)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토대를 강조해야 할 필요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본 연구자들은 Wundt(1916)에 의해 주장된 문화를 고려한 과학의 전통을 재확인하므로써(Kim & Berry, 1993; Kim, 1995), 심리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이를 기초로 심리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필요를 인식한다. 나아가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과학적 전통에 기초하여,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한국 토착심리학의 발전을 추구하려 한다.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서는 '성공' '스트레스' '권위' 및 '권위주의'와 같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의 사회적인 표상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를 강조한다(김의철, 박영신, 1997, 1998; Choi & Kim, 1993; Choi, Kim & Kim, 1997; Kim & Yamaguchi, 1995).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은 Heider(1958)의 상식적인 심리학과 유사하다. Heider(1958)는 대인간의 행동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록 비체계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매우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비록 Heider(1958)의 상식심리학과 유사하나,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모호하고 신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Heider(1958)의 입장과는 달리, 본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복잡하게 정교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만약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모호하고 신뢰롭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Harre et al., 1985).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통해 나타난다. 비록 사람들이 복잡한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다른 종류의 지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일상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상황의존적이며, 경험적이며, 전체 속의 한 부분이며, 과정적이다. 이러한 지식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며, 의미론적이고, 선언적인 과학적 지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토착심리학자는 경험에 기초한 일상의 지식을 분석적인 과학적 지식으로 변환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권위' 및 '권위주의'와 같은 사회적인 표상은 인지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된 초점은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데 있다. '권위' 및 '권위주의'와 같은 사회적인 표상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나 대리학습과 같은 매개된 경험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 사회적인 표상은 정의적이고,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표상의 세 측면에 대한 탐색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

물론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경험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인 표상의 내용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으나,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인식은 세 수준 즉, 완전히 깨닫고 설명할 수 있거나, 인식할 수는 있으나 깨닫지 못하거나,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류된다. 첫째 수준은 예컨대 사회적 예절이나 자동차 운전 규칙같이, 사람들이 사회적 표상을 쉽게 인식하고 정확히 설명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수준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인 표상을 사용하며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표상의 기저

에 있는 과정, 예컨대 문법과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귀이론, 인성이론, 사회비교이론, 사회교환이론 등과 같은 많은 심리학적 이론들이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이 사람들에게 설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인식하나, 사람들 스스로 이러한 이론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세번째 수준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표상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Freud(1966)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나 실연 및 망각과 같은 무의식적인 표상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Jung(1964)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러한 집단무의식의 내용은 근본적인 이미지로서 원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수준에서 두번째나 세번째 수준으로 갈수록, 연구자들은 사회적인 표상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가정과 추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을 한 결과로 신뢰도나 타당도가 상실될 수 있다. 즉 사회적 표상에 대해 연구자가 내리는 해석은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표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첫째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와같이 첫째 수준에서의 이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연구자는 그 다음에 두번째나 세번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사회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의미가 있는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정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생각들은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권위와 권위주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로 한다.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권위의 추락과 권위주의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위의 추락이란 말은 권위가 옹당히 부여되어야 할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뜻하는 권위는 법이나 행정적으로 규정된 제도적, 합법적 또는 직능적으로 규정된 권위나 권력의 개념보다는 사회적-도덕적으로 부여된 권능으로서의 권위를 뜻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직능관계나 조직관계를 떠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부자간, 사제간, 연령과 지위에 따른 상하간에서 평등한 지위보다는 우열 또는 상하의 차등을 두어왔다. Kim(1994)과 Triandis(1995)가 말하는 동양의 집단주의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수직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교의 삼강오륜은 바로 이러한 상하의 질서를 강조하는 인간 관계의 윤리적 틀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유교윤리가 일반인의 생활에서 규범적 행위 윤리로 보편화된 전통사회에서는, 관계나 지위에 따른 상하가 권위의 상하 또는 우열로 연계되어 상위자 또는 상급자의 잘못된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도 수용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의 전통적 원천 즉 나이, 지위·직급에 따른 권위인정체제는 최근 들어 개인주의, 합리주의 및 능력과 업적중심주의의 서구적 가치관의 도입과 더불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나이, 지위·직급 자체와 이를 차지하는 사람을 별개로 구분하여 전자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의 권위는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의철, 1998; Cha, 1994). 서구적 가치관의 수용과 관계하여 나타나는 또다른 측면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된 전통적 권위체계에 대한 범위 및 상황 제한적 인정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 유교문화사회에서는 나

이를 비롯한 각종 서열준거에 따른 권위차등화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직능적 관계나 작업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나 지위·직급에 따른 권위부여가 그것이 해당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나 상황에 국한하여 수용되고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업무처리상황에서 상사의 권위는 인정되나, 업무를 떠난 사회적 상황에서 하급자는 상사의 권한을 내적으로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의 권위추락현상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권위를 갖는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위치나 지위에 있다는 것 자체로 존경하거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권위의 행사범위와 상황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역과 상황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젊은 층에서 전문성 중심주의(professionalism)의 확산과 더불어 나이, 지위에 따른 전통적 권위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 유입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러한 전통적 권위의 범위를 전통적 인습이 중요시되는 행사나 활동 또는 일반적 인간관계에 국한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장년층과 노년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권위준거에 따른 권위의 인정을 젊은 층에게 기대하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위의 인정범위를 일반적 사회관계와 직능관계에 광범위하게 기대하고 요구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위에 대한 권위 요구자와 권위 승복자간의 생각과 행동상의 불일치를 실제의 권위 작동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 불일치의 형태가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형태로만 정리될 수 없는 복잡한 다차원적 불일치로 나타난다. 예컨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 중 어떤 행동을 또한 어느 정도까지 그 지위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서부터, 과연 상사가 그 지위에 상응하는 인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상사인 당사자와 부하직원 사이의 견해차이에 이르기까지, 또는 직능상의 상하간 권리와 의무 분할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견 및 해석차이로부터 시작하여, 퇴근시간 후에 일어나는 회식모임을 직무의 연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사교활동의 장으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에서의 차이 등 권위-승복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 및 해석의 차이는 권위와 관련된 갈등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게 된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동 속에서 크게 전통과 현대라는 이질적 가치와 사유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위의 기득권자층인 성인-장년층과 권위의 피요구층인 청소년-청년층이 서로 상대에 대해 갖는 기대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집단간 권위갈등은 물론 각 집단 구성원의 심리내적 양가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계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권위기득자(權威既得者) 및 이들의 요구에 대한 권위미득자(權威未得者)의 부정적 반응과 태도이다. 부정적 반응과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극단의 부정적 반응행동형태는 거부적 행동이며, 이러한 거부적 행동에는 적대적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보다 약한 형태의 부정적 반응행동은 비동의를 복종이며, 이러한 형태의 행동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기대하는 상대의 지위에 대한 배려나 인간적 관계 등을 중시하는 마음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권위와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권위적'이라는 말이나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권위에 대한 기대-갈등과 권위에 대한 요구-복종 갈등 관계와 관련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나 개념이다. 먼저 '권위적'이라는 말은

권위기득자의 권위요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사람의 권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가 자신의 권위준거에 상응하는 권위를 요구해 올 때, 권위요구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상대의 행동을 부당한 강요로 받아들일 때, 흔히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서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권위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나 '권위적'인 태도를 일반적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내재화하여 아랫사람과 관련된 행동에서 자신의 권위를 도구로 하여 아랫사람의 복종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성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권위적'과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모두 아랫사람이 수긍하지 않는 요구를 권위나 힘의 위세를 통해 수용하거나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상태나 행동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권위주의'라는 말은 위의 두 가지 말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회를 지칭해서 '권위주의 사회'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권위주의는 권위소지자가 강요함은 물론 권위비소지자가 이에 복종하는 즉 '권위주의적'이 통하는 사회의 인간관계체제를 지칭한다(박동서, 1991; 우리말 큰사전, 1994).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약자에는 강하고 반대로 강자에게는 약한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는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소수집단의 특성과 관계없이 가지려는 경향이 높으며 (Adorno, Frenkel-Brunswick, Levinson, & Sanford, 1950; Brown, 1965), 약자 집단인 여성에 대한 편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경환, 1989).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바대로의 '권위', '권위적', '권위주의적', '권위주의'의 개념적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권위갈등과 관련해서 권위소유-비소유 집단간 기대갈등, 요구-복종갈등 및 심리내적 갈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왜 이러한

권위관련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위갈등의 두 가지 요인을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하나는,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권위준거소지 자체가 권위를 정당화시켜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권위준거의 권위작동범위가 과거의 전통적 관습의 영역에 국한적인 것으로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권위준거기득층과 권위준거미득층간의 관계에서 전자는 권위준거의 자체적 권위내재(Immanence)와 권위의 확대적 일반화를 인습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후자는 권위준거의 자체적 권위내재에 대한 약화와 더불어 평등에 기초한 전문성 중심주의와 권위의 영역 국한적 축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상반된 권위인정체계가 그대로 장기간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는 권위준거기득세대의 노쇠와 권위준거미득세대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실세화에 따라 권위준거에 근거한 권위 및 권위주의는 앞으로 약화, 쇠퇴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세대와 구세대의 인적교체가 반드시 문화적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세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신세대의 그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홍보면서 닳는다'는 말처럼 신세대가 거부하는 권위주의가 무의식중에 그들의 가치로 내재화되거나 동일시되기도 한다. 또한 '권위적'이라거나 '권위주의적' 또는 '권위주의'라는 문제는 일상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써 통용되나, 실제의 일상적 생활장면에서 권위준거에 근거한 권위를 무의식적 또는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조장하는 행위양식이나 의사소통양식은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는 무관하게 인습적 제도의 형태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도 있다. 흔히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당사자들의 눈에는 탐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 권위준거에 근거한 권위를 내재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한국인의 문화적 관행 중의 하나로 한국인의 체면행동과 관련된 관행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한국의 문화적 틀 속에서의 체면관행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 즉 권위준거기득자의 권위와 인격을 지키고 지켜주며, 차리고 세워 주는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인상호작용형태와 양식으로 한국사회에서 널리 보편화된 인습적 관행이다. 따라서 체면을 지키거나 차리거나 세우는 당사자는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며, 반대로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행하는 체면지켜주기, 체면차려주기, 체면세워주기의 궁극적 목표와 기능도 자기 자신이 아닌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위와 인격을 높여주거나 이를 인정해주는 데 있다. 이는 권위주의에서 권위-권력자의 권위를 힘없는 약자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인정해주는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최상진(1997)은 체면을 지위-신분 체면과 인격-능력 체면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한국인의 전통적 의식구조속에 지위와 신분이 높으면 인격과 능력이 더불어 높을 것이라고 믿는 지위-신분·인격-능력 합치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바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 유승엽, 1992; Choi & Kim, 1999; Choi & Kim, 1992; Choi et al., 1997). 물론 이러한 믿음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믿음이라기 보다 개연성을 띤 개괄성 통념이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위, 신분과 같은 권위준거와 권위준거기득자의 인격과 능력을 구분하는 것처럼 체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 체면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이 권위준거기득자의 인격과 능력을 포함한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체면행위와 관행은 궁극적으로 권위준거에 따른 사회적 권위체제를 실천적 삶의 활동 속에서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시적 시각에서 볼 때 권위와 체면은 모두 평등에 반하는 우열이나 상하를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권위의 현시와 승인의 행동적 형태가 체면의 현시와 인정의 행동적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면행위와 관행은 권위의 우열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매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위인정에 대한 세대간, 사회집단간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체면 행위에 관여된 쌍방 간에도 상대에 대한 기대 차이 및 요구와 부응간의 불일치가 세대간, 사회집단간에 존재하며, 동시에 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면에 있어서도 개인의 심리 내에서의 양가적 갈등이 최근에 현재화되고 있다. 예컨대, 직장의 상사가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자신을 깎듯이 모시는 체면세워주기 행동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와 같이, 신분이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체면행동에 대해 전통사고와 현대적 사고 사이의 양가적 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위추락이나 권위주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배경을 보면,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권위추락행동에서 비롯된 권위추락이나, 권위에 대한 복종요구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제기된 권위주의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통적 권위준거에 대한 권위부정 당사자들에 대한 전통적 형태의 권위복종요구에서 비롯된 권위부정당사자들의 부정적, 거부적 태도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분명한 권위추락적 행동이나 명백하게 부당한 권위적 행동은 권위추락이나 권위주의의 개념적 그물망에 들어오기 이전에 무능한 행동, 비합리적 행동, 비인격적 행동 또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보편타당한 사회정의체제에서 걸러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권위추락이나 권위주의 문제는 사회정의체제로 걸러지지 않는 회색성을 갖는

영역에 속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인습과 전통이라는 도덕적 베일속에 묻혀있는 사회적 관행으로,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수용되기 어려운 영역의 양가성 문제의 성격을 갖는 행위관행과 관련된다.

권위나 권위주의와 관련된 행동이 인습과 전통성을 가지며 도덕적 성격을 띤 관행적 행동이라는 것은 일상적 삶이나 사회관계 속에서 비판적 의식의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문화맥락적 행위임을 뜻한다. 체면도 권위나 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습성과 전통성을 가진 문화맥락적 행위현상으로 이에 대해 양가적 평가가 가능한 회색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권위, 권위주의, 체면은 모두 시각에 따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도덕적 함축성을 갖는 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원의 현상은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으며, 그 기제면에서 선후적 또는 인과적 관계를 갖는 쌍둥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권위에서 체면이 나오며 체면에서 권위가 세워진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체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과 일반 성인들(직장인)을 대상으로 체면에 대한 생각을 자유기술식 질문지와 구조적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기술적 통계와 요인 구조 파악을 위해 요인 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응답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C 대학생 90(남 51, 여 39)명과 모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인의 경우, 연령은 32세부터 50세까지 30대, 40대와 50대로 분포되었고, 평균 연령은 35세였으며, 90% 이상이 기혼자였고,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피험자들의 생각과 기술을 요구한 자유기술식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와 Likert 5점 척도의 구조적 질문지를 혼합한 것으로, 개방형 질문지에는 1) 체면의 이자 관계(누가 누구 앞에서)를 기술하고 그 중 체면을 가장 많이 차리는 관계를 서열화 하도록 요구했고, 2) 체면이 떨어지는 경우와 안차려도 되는 경우, 3) 체면이 떨어지는 관계 상황을 설정해주고 결과되는 손실(예를 들면, 사장이 사원앞에서 체면이 떨어질 때 결과되는 손실)을 기술하게 했다. 그리고 3) 체면을 지키는 일에 민감한 사람의 특성 및 사회적 신분, 4) 체면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한 사람의 특성 및 사회적 신분, 5) 체면을 안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6) 체면을 지키면 거리감이 생기는 상황, 6) 체면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 7) 체면 표출 방식, 8) 체면 몰수하고 행동하게 되는 상황 등을 피험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였다. 척도화된 질문은 1) 체면 손상시 입게 되는 손실의 내용을 물어 체면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질문 문항, 2)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체면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 그리고 3) 체면을 세워주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문항이 있다. 각 질문 문항 중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결손치로 처리하고, 표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총 분석대상 수가 다르다.

## 분석 및 결과

### 1) 체면이 문제가 되는 관계

체면이 문제가 되는 맥락은 '누가 누구 앞에서 체면을 지키거나 세운다' 또는 '누가 누구의 체면을 지켜주거나 세워준다' 는 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체면의 당사자와 피당사자가 반드시 관여



된다. 체면이 문제가 되는 이자 관계는 표 1에서처럼 성인 집단인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 앞에서 체면을 차리게 된다가 가장 많은 반응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학생 앞에서와 남편이 아내 앞에서, 선배가 후배 앞에서, 남자가 여자 앞에서, 친구(내)가 친구 앞에서, 부하직원이 상사 앞에서, 어른이 아이 앞에서, 여자가 남자 앞에서의 순이다. 성인의 반응 중 학생들과 다른 것은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 앞에서와 어른이 아이 앞에서, 친구(동료)가 친구(동료) 앞에서이다. 성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체면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제로 인식하는 듯하고, 수평적 대인 관계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학생들은 교수가 학생 앞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 앞에서, 선배가 후배 앞에서, 남자(남편)가 여자(아내) 앞에서, 형이 동생 앞에서, 남편이 아내 앞에서, 부모가 자식 앞에서의 순으로, 체면을 지키는 관계 상황은 양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종속적이며, 역할 중심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체면을 차리는 사람의 특성은 그 상대와 비교해 신분이나 지위, 연령 및 관계상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고 역할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1. 체면이 작위되는 관계: 빈도 순위

체면을 차리는 이자관계	학생	성인
교수가 학생 앞에서	1	2
상사가 부하직원 앞에서	2	1
부하가 상사 앞에서		7
선배가 후배 앞에서	3	3
남자(애인)가 여자(애인)앞에서	4	3
형(누나)이 동생 앞에서	5	10
남편이 아내 앞에서	6	3
부모가 자식 앞에서	7	11
정치가가 국민 앞에서	8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9	
여자(애인)가 남자(애인) 앞에서	10	8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11	
친구(동료)가 친구(동료) 앞에서		3
어른이 아이 앞에서		8

성인 집단의 경우 사회생활 속에서 부하직원도 직장 상사 앞에서 체면을 차리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고, 또한 친구나 동료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체면은 신분이나 지위상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이미지를 손상받지 않기 위해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 상대방의 사람은 이러한 지위 상징 행동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상대의 지위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양자간에 체면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체면이 문제가 되는 관계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인물 규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 2) 체면이 떨어지는 상황 및 체면의 구조

체면이 떨어지는 상황 범주는 크게 행위-인격, 행위-능력, 행위-권위의 연결로 압축되는데,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되면서 동시에 그 신분과 지위에 적합한 인격, 능력 및 권위의 연결 도식이 성립된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혹은 직위, 나이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 규범을 어겼을 때, 체면손상자의 인격이나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성인 집단의 경우, 공중도덕이나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인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되는

표 2.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범주 및 빈도

상황 범주	학생	성인
지위·신분-인격의 문제 · 공중도덕(예의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 거짓말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118	46
지위·신분-능력의 문제 · 교수가 지식이 짧을 때 ·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114	17
지위·신분-권위의 문제 · 부끄러운 상황 ·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경우 · 무시를 당할 경우	109	16

표 3. 체면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실: 빈도

손실 및 불릿점 범주	학생	성인
권위 하락 · 지도력 결여 · 존경심 상실 · 위엄(위신) 상실	240	109
신뢰감 저하 · 이론을 믿지 않는다 · 신뢰도 상실	143	32
영향력 저하 · 교육의 어려움 · 통제력 약화	128	12
인격 하락 · 불성실해 보인다 · 자존심이 상한다 · 인간성을 의심받는다 · 무시당한다	120	26
대인관계의 어려움 · 유대관계의 파괴 · 좋은 관계를 이루기 어려움	73	16
기대에 대한 실망 · 실망으로 인한 애정 상실 · 맞선 청사 안됨	61	12

표 4. 체면이 떨어질 때 손실의 정도: 평균

문항내용	학생	성인
1. 아래 사람이 리더의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3.92	3.58
2. 품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87	3.73
3. 존경심이 줄어들 수 있다	3.81	3.59
4.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59	3.18
5.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58	3.38
6.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44	3.33
7.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3.33	3.78
8. 인격이 천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3.33	3.54
6.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3.33	3.54
9.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쉽다	3.12	3.39
10. 상대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다	2.86	3.07
11. 고등교육이나 명문학교를 못나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2.82	2.85
12.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79	3.08
13. 그런 사람과 사귀면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78	2.85
14. 천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2.71	2.78
15. 성격이 거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2.66	2.73
16. 손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64	3.03
17.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64	2.80
18. 비합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62	3.10
19.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2.49	2.64

능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체면 손상자에 대한 사회적 역량 및 지도력, 능력 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표 2 참조).

표 3(표 4 참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관계 상황에서 체면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손실은 권위 추락, 인격의 하락, 지도력 결여, 신뢰도 추락, 상급자에 대한 불신, 영향력 저하, 무능하게 인식됨(존경심 저하), 기대에 대한 실망 등이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권위나 위신, 존경심, 신뢰도, 인격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체면이 손상될 때 생기는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 3)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 및 상황

체면은 관여된 체면 당사자와 피당사자가 서로 상대의 인적상황, 예컨대 신분·지위, 인격 및 능력 등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경우나 체면이 친밀한 관계에 장애가 되는 비공식적 상황이나 사교적 상

황에서는 체면 심리 및 행위가 약화되거나 발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면은 공식적 상황이나 소원한 인간관계 상황 또는 상호 부지의 공공상황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성인과 학생 모두, 아주 친밀한 사이(예를 들면, 부부사이, 가족끼리, 연인사이, 동료간에 등)를 첫 번째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체면보다 더 중요하거나 또는 더 위급한 상황(예를 들면, 무슨 일에 열중할 때, 생리적 문제에 봉착시, 식사할 때, 급한 일로 뿔 때 등)에서는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체면을 차릴 때 격식감과 소원감을 주는 상황은 상대와 더 친밀하게 되고 싶은 상황과 분위기가 체면을 압도하는 상황(예를 들면, 술자리나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 중에 등) 등이다. 반면에, 성인 집단의 경우, 자신의 신념이 강할 때 체면을 안차려도 된다고 응답했다. 체면을 지키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는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unit relationship)나, 상대의 내면을 잘 아는 관계(예를 들면, 부부사이, 부자, 모녀사이, 형제, 자매간 등), 애정이나 회락관계(예를 들면, 연인간,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유흥·오락·체육대회 중, 맞선·미팅을 할 때 등), 친밀한 내집단 내의 관계(예를 들면, 직장동료, 스승과 제자사이) 등이다.

#### 4) 체면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및 상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생들은 공식적 만남(예를 들면, 회의 중이나 대통령의 외교 활동 중 등), 사회 제도적 관계(예를 들면, 스승을 대할 때, 학부모와 선생님), 사회 신분적 상하관계(예를 들면, 교수가 학생 앞에서, 부모가 자식 앞에서)를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및 상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직장인들은 공식적인 모임이나 업무 수행

표 5. 체면을 지키는 것이 적합한 경우 및 상황: 빈도

상황 범주	학생	성인
제도적 체면관계 · 목사와 신도 · 공인의 입장일 때 · 스승을 대할 때	74	4
공식적 만남의 관계 · 회의 석상, 업무 수행시 · 공식석상(대통령 외교활동)에서	60	7
상하 관계 · 상사가 부하직원 앞에서 · 교수가 학생 앞에서	57	4
의례적인 만남 · 초면일 경우 · 관혼상제 참여시(제사지낼 때, 상가집에서)	42	5

시, 상하관계에서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면은 공식적 상황이나 소원한 인간관계 상황 또는 상호 부지(不知)의 공공상황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 5) 체면 민감자와 둔감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체면을 지키는 데 민감한 사람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성인집단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과 권위적인 사람, 관료직에 있는 사람, 교육적 역할 수행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 등을 지적하였고, 대학생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하고, 명예와 지위를 중시하거나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다. 반면에, 체면을 지키는 데 둔감한 사람의 특성은 낮은 지위(예를 들면, 사회적 신분이 낮은 하류층이거나 생활고에 찌든 사람), 자기성취 중시(예를 들면, 자신의 일에 몰두, 자기 발전 중시, 소신이 뚜렷한 삶), 실질 중시(남의 이득에 신경을 쓰지 않음, 체면과 무관한 직업을 가짐, 타인의 평가 무시, 체면을 허식이라 여김, 실속을 차림),

표 6. 체면을 지키는 데 민감한 사람의 심리·사회적 특성: 빈도

심리·사회적 특성 범주	학생	성인
이미지 중시 ·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여기는 사람 · 기회주의자	127	3
명예·지위 중시 · 집단의 리더, 위치 중시 · 존경을 받는 사람(종교계 인사, 교육자)	103	9
상대와의 지위·권위 차별화 중시 · 사회적 신분이 높다(상류층) · 타인에 비해 우월감을 느낌	46	19
자신감이 낮음 · 우유부단하다 ·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37	4
형식·절차 중시 ·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 권위적·사교적으로 보임, 보수적 · 예절 및 관습 중시	36	13
자존심 중시	31	

고정관념탈피 중시(사회적 관념에서 탈피,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사고의 소유자), 창의성 중시(예술가의 작업,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표 6 참조).

#### 6) 체면을 지켜야 할 대상 및 체면 표출 양식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체면을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평가치는 대학생들과 성인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예를 들면, 장관, 사장, 총장 등)일수록 체면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낮은 신분이나 서민(예를 들면, 대학생, 노동자, 거지, 농민 등)일수록 그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체면을 지켜야 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국회 의원, 판검사, 장관, 사장, 여성 단체 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이면서 권

표 7. 체면을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평가치: 평균

체면을 지켜야 할 사람	학생	성인
1. 장관	4.07	3.78
2. 목사, 신부, 스님	3.84	3.18
3. 판검사	3.83	3.63
4. 대학의 총장	3.81	3.48
5. 사장	3.77	3.70
6. 국회의원	3.68	3.45
7. 대학교수	3.60	3.55
9. 범죄집단의 두목	3.43	2.70
9. 고등학교 선생님	3.41	2.98
10. 군인 장교	3.39	3.45
11. 군청의 군수	3.32	3.08
12. 사회여성단체 지도자	3.32	2.83
13. 의사	3.26	2.80
14. 연예인	3.26	2.73
15. 교회의 집사	3.16	2.78
16. 파출소장	3.07	2.58
17. 시골의 면장	2.84	2.78
18. 동네의 동장	2.51	2.25
19. 신문기자	2.38	2.20
20. 시인 및 화가	2.36	2.43
21. 농민	2.21	2.28
22. 대학생	2.21	1.90
23. 노동자	2.12	2.25
24. 거지	1.27	1.70

력을 가진 직업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대학 총장, 교수, 군수, 군인 장교, 선생님, 목사 등으로 이 역시 사회 지도층이면서 명예적 직업의 사람들이며, 세 번째로는 사회적 권력이 없는 대학생이나 노동자, 농민, 시인이나 화가, 연예인 등이다. 이는 체면의 구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도자이면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체면을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면의 행위 형식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상징도 포함된다. 그래서 체면 상징 표출을 통한 체면 행위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체신과 관련있는 체면 상징 표출 방식에는 외적인 상징물(고급 승용차, 사는 동네, 고급 의상 등)과 당사자의 인격이나 품위를 건줄 수 있는 말씨나 태도, 표정 등

표 8. 체면관계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노출시키는 방식: 빈도

반응 범주	학생	성인
부와 권위 상징 현시 · 좋은 집, 고급 자동차(의류) · 취미 생활(골프 등) · 관혼상제(많은 혼수 등)	187	48
신분 관련 내적 특성 현시 · 근엄한 표정 · 점잖은 말씨, 여유있는 태도 · 권위적인 행동	41	6
지위·신분 관련 대인관계 · 동창모임(사교생활) ·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교제	24	3

이 있다. 또한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교생활 또한 체면을 노출시키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표 8 참조).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체면의 작위자는 권위의 주체이며,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곧 체면 당사자의 지위, 신분-인격과 능력, 권위가 손상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권위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영향력이 저하되며 인격이나 인품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논의 및 결론

권위의 문제가 지위, 신분과 같은 권위의 준거와 권위자의 인격과 능력을 구분하는 것처럼, 체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행적 체면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이 권위자의 인격과 능력을 포함한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체면행위와 관행은 궁극적으로 권위 준거에 따른 사회적 권위체제를 실천적 삶의 활동 속에서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위와 체면은 모두 평등에 반하는 우열이나 상하를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인관

계에서 나타나는 권위의 현시와 승인의 행동적 형태가 체면의 현시와 인정의 행동적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면행위와 관행은 권위의 우열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매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체면의 작위자는 권위의 주체이며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곧 체면 당사자의 지위, 신분-인격과 능력, 권위에 손상이 간다. 결과적으로 권위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영향력이 저하되며 인격이나 인품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체면을 지키는데 민감한 사람은 곧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추락이나 권위주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권위실추행동에서 비롯된 권위실추나, 권위에 대한 복종요구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제기된 권위주의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통적 권위준거에 대한 권위부정 당사자들에 대한 전통적 형태의 권위복종요구에서 비롯된 권위부정 당사자들의 부정적, 거부적 태도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권위나 권위주의와 관련된 행동이 인습과 전통성을 가지며 도덕적 성격을 띤 관행적 행동이라는 것은 일상적 삶이나 사회관계속에서 비판적 의식의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문화맥락적 행위임을 뜻한다. 체면도 권위나 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습성과 전통성을 가진 문화맥락적 행위현상으로 이에 대해 양가적 평가가 가능한 회색영역에 속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위, 권위주의, 체면은 모두 시각에 따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도덕적 함축성을 갖는 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원의 현상은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그 기제

면에서 선후적 또는 인과적 관계를 갖는 쌍둥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권위에서 체면이 나오며 체면에서 권위가 세워진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동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 김경동 (1993).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서울: 박영사.
- 김의철 (1998). 한국기업문화의 이해와 발전방향: 기업에서의 인력개발을 위한 모형 탐색. 인재개발연구, 2, 68-101.
- 김의철·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96-126.
- 김의철·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기순 (1994). 권위의 정당성에 관한 사회윤리학적 연구. 숭실대학원논문집, 12, 65-85.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1), 146-168.
- 박동서 (1991). 권위와 권위주의. 자유공론, 292, 104-113.
- 박영신·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의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학회지, 37(3), 139-172.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김기범 (1998).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59-577.
- 최상진·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Azuma, H. (1984). Psychology in a non-Western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145-155.
- Brown, R. W. (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Macmillan.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dd, M. (1989). *Wittgenstein's Philosophy of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Cha, J. H. (1994). Changes in value, belief, and behavior of the Koreans over the past 100 year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40-58.
- Choi, S. C., & Kim, K. (1999c).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Chemy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Choi, S-C., & Kim, U. (1992). Multifaceted analysed of Chemyon(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Colloquium presentation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May 7, 1992*.
- Choi, S. C., Kim, U., & Kim, DI. (1997). Multifaceted analyses of Chemyon ("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In Leung, K., Kim, U., Yamaguchi, S., & Kashima Y.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ume 1*

- (pp. 3-22). Singapore: John Wiley & Sons, Inc.
- Graumann, C. F. (1972). The state of psychology, I.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7, 123-134.
- Harre, R., Clarke, D., & De Carlo, N. (1985). *Motives and Mechanisms: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Action*. London: Methuen.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o, D. Y. F. (1982). Asian concepts in behavioral science. *Psychologia*, 25, 228-235.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
- Hsu, F. L. K. (1983). *Rugged individualism reconsidered*.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Jung, C. (1964). *Man and His Symbols*. Garden City, NY: Doubleday.
- Kim, U.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G.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19-40). Thousand Oaks, CA: Sage.
- Kim, U. (1995). Psychology, science, and culture: Cross-cultural analysis of national psycholog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0, 663-679.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 Berry, J. W. (1993) (Eds.). *Indigenous psychologies: Theory, method, and experience*. Newbury Park, CA: Sage.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empirical finding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 55-73.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C., & Yoon, G. (1994)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19-40). Thousand Oaks, CA: Sage.
- Kim, U., & Yamaguchi, S. (1995). Cross-cultural research methodology and approach: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Japanese social psychology.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168-179.
- Manstead, A. S. R., & Hewstone, M. (1995).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Moscovici, S. (1972). Society and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J. Israel and H. Tajfel (Eds.),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London: Academic.
- Rosch, E., & Lloyd, B. B. (1978)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hweder, R.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Wundt, W. (1916). *Elements of folk psychology: Outlines of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mankind*. [Translated by E. L. Schaub]. London: George Allen & Unwin.

## The Structure of Authority, Authoritarianism and Chemyon in Korea: An Indigenous Analysis

Sang-Chin Choi<sup>1</sup>, Uichol Kim<sup>1</sup>, Sung-Yoon Hong<sup>1</sup>, Young-Sook Park<sup>2</sup> and Seung-Yeob Yu<sup>3</sup>

<sup>1</sup>Chung-Ang University, <sup>2</sup>Ewha Women's University and <sup>3</sup>Nam Seoul University

The paper analyzes the concepts of authority, authoritarianism, and chemyon ("face") in Korean culture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es approach developed by Kim and Berry (1993). The present authors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face" and authority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The concepts of chemyon and authority in Korea must be understood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taking into consideration institutional, traditional, and moral dimensions. Empirical studies with students and adults reveal that the concepts of chemyon and authority are closely inter-related. Maintenance of chemyon is a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maintenance of authority. In other words, loss of chemyon implies the loss of authority and authority is preserved when one's chemyon is maintained. However, maintenance of chemyon does not imply existence of authority.